

학습목표

1. <보기>를 통한 문학접근법을 확인할 수 있다.
2. 문제를 통한 기점잡기를 할 수 있다.
3. 문학에 접근할 때 필요한 마인드 셋을 확인할 수 있다.
4. 문학 문제 풀이 속도를 올리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Theme 2. 문학 문제분석과 시험력 상승

출처: 2023학년도 6월, 9월 및 2022학년도 수능

문제 Setting과 오답률 확인

선택 문항 분류 ! 최대 10개 선택가능 (3/10)

국어 > 문학 > 06 > 2022 ✕

국어 > 문학 > 08 > 2022 ✕

국어 > 문학 > 11 > 2021 ✕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유형 객관식 주관식

배점 1점 2점 3점 4점

오답률 50%이상

이력 줄어본문제 포함

문제수 100

문제검색

총 7개의 문제가 검색되었습니다.

출처 ▼

● 설명

분류	배점	오답률	체감 난이도	연도	출처
<input type="checkbox"/> 국어 문학 Q 미리보기 문학의 수용 >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2점	53%		2021년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22번
<input type="checkbox"/> 국어 문학 Q 미리보기 문학의 수용 >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3점	59%		2021년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23번
<input type="checkbox"/> 국어 문학 Q 미리보기 문학의 수용 >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2점	53%		2022년	고3 6월 모평(평가원) 26번
<input type="checkbox"/> 국어 문학 Q 미리보기 문학의 수용 >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3점	62%		2022년	고3 6월 모평(평가원) 31번
<input type="checkbox"/> 국어 문학 Q 미리보기 문학의 수용 >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3점	57%		2022년	고3 6월 모평(평가원) 34번
<input type="checkbox"/> 국어 문학 Q 미리보기 문학의 수용 > 작품의 내용 이해	2점	50%		2022년	고3 9월 모평(평가원) 29번
<input type="checkbox"/> 국어 문학 Q 미리보기 문학의 수용 >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3점	50%		2022년	고3 9월 모평(평가원) 34번



문제 분석

분석자료 구성과 활용 하는 방법

[분석 자료]

1. 지문

[1 문단]

제도의 선택에 대한 설명에는, 합리적인 주체인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가장 이익이 되는 제도를 선택한다고 보는 효율성 시각과 이데올로기·경로의존성·역 과정 등으로 인해 효율적 제도의 선택이 일반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제도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설명하는 관점은 두 가지이다.

- 효율성 시각
- 효율적 제도의 선택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보는 시각

설명:

- 두꺼운 두 줄로 사이에 있는 내용은 지문입니다.
- 지문 아래에 해당 문장에 대한 해설을 작성했습니다.

To-Do List:

- 지문 읽으시고, 아래 해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해당 지문이 이해가 안가거나 인상적인 내용이 있다면, 별표나 나뭇대로의 표시하고, 나중에 복습하시면 됩니다.

2. 단어 확인

WORD 1 직관-적 直觀的 이라는 것

直 곧을 직 觀 불 관 의 과녁 적

1. 판단이나 추리 따위의 사유 작용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것.

WORD 2 호소-력 呼訴力 이라는 것

呼 부를 호 訴 호소할 소 힘 력(역)

1. 강한 인상을 주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2. 호소(呼訴)하여 동경(同情)을 불러일으키는

설명:

- 평소에 쉽게 지나가는 단어들, 그런 단어들의 뜻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To-Do List:

- 해당 단어의 뜻을 명확히 몰랐다면, 꼭 뜻을 확인합시다.
- 나중에 공부하면서 지나가는 단어 중에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나뭇대로 검색해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3. 추가적인 학습 포인트

CHECK 2 OR이 있는 문장구조(복문의 함정)

OR구조로 이어질 때 문장 성분이 생략되는 경우

- 사과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중력으로 설명할
- 포탄이 포물선 운동을 하는 이유는 중력으로 설명할 (OR을 통한 문장구조)

사과가 바닥으로 떨어지거나 포탄이 포물선 운동을 하는 중력으로 설명 할 수 있다.

해당 네모를 친 표현에서 실제로 생략되는 문장 '지는 이유는 중력으로 설명할 수 있다.'이며, 이

설명:

- 주어진 문장에서 추가로 학습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정리했습니다.

To-Do List:

- 학습 포인트를 읽고, 지문에서 해당 포인트를 직접 확인합시다.
- 복습하신다면, 꼭 별표나 자신만의 표시를 합시다.

4. 학습목표

학습목표

- 익숙해서 쉽게 지나가는 단어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
- 익숙한 문장구조에서 생략되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 지문에서 그래프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래프의 특징
- 개념 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구분 기준을 확인할 수
- 정성적 개념과 정량적 개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설명:

- 처음에 정리된 학습목표들은 다시 확인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To-Do List:

- 학습목표를 확인하시면서 앞에 네모 칸에 체크합시다
- 학습목표 아래에 네모 칸에, 해당 학습을 하면서 기억에 남거나, 깨달은 점들을 정리합시다.

CHECK 1 <보기>로 달려가는 이유



문학은 감정이 중심이 되며, 인간의 삶의 방식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야기를 만들기 때문에, 논리적 구조를 바탕으로 문제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전혀 이해가 안되는 표현도 존재하며, 논리적 비약도 심하며, 논리적 구조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하다.

그래서 문제나 <보기>에서 제시되지 않았다면, 단순 '긍정-부정' 관계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주어진 <보기>에 맞추어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문제는 논리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5지선다에서 선택된 하나의 답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논리적 구성을 위해 대부분의 논리적 구성은 '문학지문' 밖에서 설정된다.

그것이 <보기>일 수도 있고, 혹은 문제 자체일 수도 있다. 그래서 문제 자체를 먼저 읽어서, 논리적 구성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며, 때때로 반드시 문제를 먼저 읽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23학년도 6월 모평

[31번 보기]

'진작부터 버르던 이야기'는 백 주사가 자신과 가족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부분이다.

백 주사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억울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서술자는 그 '이야기'를 서술자의 시선뿐 아니라 여러 인물들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서술함으로써 독자와 작중 인물 간의 거리를 조절한다. 또한 세부 항목을 하나씩 나열하여 장면의 분위기를 고조하고 정서를 확장하는 서술 방법으로 독자에게 현장감을 전해 준다.

백 주사의 억울함을 설명할텐데, 흥미롭게도 서술자 뿐만 아니라 다른 인물들의 관점에서 서술된다는 것이다.

WORD 1 장면의 초점화

'장면의 초점화'는 영화의 한 컷(Cut)이나 한 신(Scene)을 보여 주는 것처럼 어느 특정한 장면에 초점을 맞추어 묘사하거나 서술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초점화되기 때문에, 세부 항목을 나열하며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다. 장면의 분위기가 더 분명하게 정리되기 때문에, 장면에서 전달되는 정서 역시 더 세부적으로 전달된다. 다시 말해, 세부적으로 묘사되면서 현장감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때 독자는 백 주사와 그의 가족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비판적으로 보게 된다.

다른 인물들의 관점에서 서술되는 방식, 그 다른 인물을 백 주사와 그의 가족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백주사가 억울하다는 하소연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CHECK 2 기점잡기

별다른 생각없이 읽을 수도 있어야 하지만, <보기>에서 주어진 논리적 구성을 기반으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보기> 해석을 통해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기점잡기라고 한다.

논리적 구조를 통한 기점을 잡을 때, <보기> 뿐만 아니라 선지의 참-거짓을 통해 생각의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

[지문 해설과 31번 문제 풀이]

<보기>를 참고하여 [A] ~ [E]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백 주사의 아들 ㉠백선봉은, 순사 임명장을 받아 귀면서부터 시작하여 8·15 그 전날까지 칠 년 동안, 세 곳 주재소와 두 곳 경찰서를 전근하여 다니면서, 이백 석 추수의 토지와, 만 원짜리 저금통장과, 만 원어치가 넘는 옷이며 비단과, 역시 만 원어치가 넘는 여편네의 패물과를 장만하였다.

일제감정기에 백선봉은 순사였으며, 엄청 해쳐먹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A] 남들은 주린 창자를 졸라맬 때 그의 광에는 옥 같은 정백미가 몇 가마니씩 쌓였고, 반년 일 년을 남들은 구경도 못 하는 고기와 생선이 끼니마다 상에 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다.

다른 인물이 추가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1번의 1번 선지를 활용하자!

① [A]: 백선봉의 풍요로운 생활을 '남들'의 굶주린 생활과 비교하여 서술함으로써 독자가 그를 비판적으로 보게 하고 있군.

- 백선봉의 풍요로운 생활: 그의 광에는 옥 같은 정백미가 몇 가마니씩 쌓였고, 반년 일 년을 남들은 구경도 못 하는 고기와 생선이 끼니마다 상에 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다.

- '남들'의 굶주린 생활: 남들은 주린 창자를 졸라맬 때 반대되는 생활이 나열되면서, 비교가 발생하며

- 독자가 그를 비판적으로 보게 하고 있군: 이때 독자는 백 주사와 그의 가족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서서 그들을 비판적으로 보게 된다.

이와 같이, 지문과 <보기>를 활용하며, 선지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동일한 방식으로 나머지 선지를 처리하자.

××경찰서의 경계계 주임으로 있던 마지막 이 년 동안은 더욱더 호화판이었다. 8·15 그날 밤, 군중이 그의 집을 습격하였을 때에 쏟아져 나온 물건이 쌀 말고도 광목 여섯 필

- [B] 고무신 스물세 켤레
지카다비 여덟 켤레
빨랫비누 세 귀짝
양말 오십 타
정종 열세 병
설탕 한 부대

② [B]: 부정하게 모은 많은 물건들을 하나씩 나열하여 습격 당시 현장의 들뜬 분위기를 환기함으로써 '군중'의 놀람과 분노를 독자에게 전하려 하고 있군.

이렇게 있었더라. 만 원어치 여편네의 패물과, 만 [C] 원 어치의 옷감이며 비단과, 만 원짜리 저금통장은 고만두고 말이었다.

③ [C]: '있었더라'를 통해 누군가에게 들은 것처럼 전하면서도, 전하는 내용을 '군중'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독자가 '군중'의 입장에 서도록 유도하고 있군.

물건 하나 없이 죄다 빼앗기고, 집과 세간은 조각도 못 쓰게 산산 다 부수고, 백선봉은 팔이 부러지고, 첩은 머리가 절반이나 뽑히고, 겨우겨우 목숨만 살아, 본집으로 도망해 왔다.

일번 고을에서는, 백 주사가, 자식이 그런 짓을 해서 산 토지를 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거만히 굴고, 작인들 [D] 한테 팔 할 가까운 도지를 받고, 고리대금을 하고 하였 대서, 백선봉이 도망해 와 눕는 그날 밤, 그의 본집인 백 주사네 집을 습격하였다.

④ [D]: ‘동네 사람’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백 주사의 만행을 서술함으로써 백 주사가 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처럼 독자가 느끼게 하고 있군.

집과 세간 죄다 부수고, 백선봉이 보낸 통제 배급 물자 술한 것 죄다 빼앗기고, 가족들은 죽을 매를 맞고, [E] 백선봉은 처가로, 백 주사는 서울로 각기 피신하여 목숨만 우선 보전하였다.

백 주사는 비싼 여관 밥을 사 먹으면서, 울적히 거리를 오락가락, 어떻게 하면 이 분풀이를 할까, 어떻게 하면 빼앗긴 돈과 물건을 도로 다 찾을까 하고 궁리를 하는 것이나, 아무런 묘책도 없었다.

⑤ [E]: 백 주사 ‘가족’의 몰락을 보여 주는 사건들을 백 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초점화하여 그들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편에 선 독자가 통쾌함을 느끼게 하고 있군.

[E]에서 제 3자의 시선에서 객관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백 주사의 시선으로 서술되지 않았다. 따라서 답은 5번인데...

CHECK 3 문학 문제의 답

이번 31번 문제의 오답률은 62%지만,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개념은 ‘서술자의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더 단순하게 보면, ‘백 주사’라는 단어가 잘못된 것이다.

물론 아주 엄밀하게 따진다면 해당 선지에서 고쳐야 할 부분이 더 있지만, 정답으로 향하는 데에는 단순한 단어 하나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되었다는 말이다.

결국 지문이 복잡하게 나오든, <보기>가 복잡하게 나오든 상관없이 선지에서는 아주 단순한 단어 하나, 단순한 논리 하나만을 찾으면 정답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2009학년도 수능부터 작년 2022학년도 수능까지 오답률이 70%를 넘는 경우가 없었다. 왜냐하면 문학에서 사용하는 ‘오답 선지를 만드는 방식’에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학문제를 풀 때, 선지에 접근할 때는 ‘어차피 오답의 이유는 단순할테니까’ 라는 생각을 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34번 보기]

(가)와 (나)는 모두 부정적 현실을 비판한 작품이다.

부정적 현실이 있다면, 어떻게 부정적인지 확인하자.

(가)는 물질문명의 허위와 병폐에 물들어 가는 공동체가 농경 문화의 전통에 바탕을 두고 건강한 생명력과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작가 의식을 담고 있다.

(가)에서의 부정적 현실

: 공동체가 물질문명의 허위와 병폐에 물들어 간다.

공동체의 특징

- 농경 문화의 전통을 바탕으로 둔다.
- 건강한 생명력과 순수성
- 한 때 건강했기 때문에, 회복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환영(幻影)을 통해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대중을 획일적으로 길들이는 권력의 기만적 통치술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

권력의 기만적 통치술

- 환영을 통해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킨다.
- 대중을 획일적으로 길들이려 한다.

(나)의 부정적 현실

: 권력의 기만적 통치술이 있는 현실

[지문 해설과 34번 문제 풀이]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가)

향아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우물가에 비취이던 오래지 않은 옛날로 가자

수수럭거리는 수수밭 사이 걸썩스런 웃음들 들려나오며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 맨발을 담그고 늘어앉아 빨래들을 두드리던 전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공동체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 농경 문화의 전통을 바탕으로 둔다.
- 건강한 생명력과 순수성

노동자를 보아라 향아 회올리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에 넋 빼앗기지 말고

철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미끈땡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 배기기 전으로 눈빛 아침처럼 빛나던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은 젊음으로 찾아가자꾸나

③ (가)에서 '기생충의 생리'는 자족적인 농경 문화 전통에 반하는 문명의 병폐를 보여 주는군.

- 하지 말아야 할 행위: 회올리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에 넋 빼앗김

젊음: 눈빛 아침처럼 빛나던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은 젊음으로 찾아가자꾸나

젊음 이후(현재): 미끈땡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 배기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은 자족적인 농경 문화의 전통이 남아 있는 공동체로, '기생충의 생리'에 인이 배기기 전에 돌아가자는 것은 자족적인 농경 문화의 전통에 반하는 문명의 병폐에 익숙해지지 말자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얼굴 생김새 맞지 않는
발돋움의 흥낼랑 그만 내자

④ (가)에서 '발돋움의 흥내'를 낸다는 것은 물질문명에 물
들어가는 상황을 보여 주는군.

- 하지 말아야 할 행위: 발돋움 흥내
- 발돋움 흥내의 특징: 얼굴 생김새에 맞지 않음

'나'의 심리: 무엇인가 허물어지는 것이 두려움

화자가 '향'에게 그만두라고 한 행위인 '발돋움의 흥내'는
가식적인 현대문명에 물들어가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고
콩바심하던 차라리 그 미개지에도 가자

① (가)에서 '차라리 그 미개지에도 가자'라는 화자의 권유
는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하여 순수성을 지켜 나가려는 의
식을 보여주는군.

- 해야 할 행위: 그 미개지에도 가는 것
- 미개지의 특징: 맨발을 벗고 콩바심하던 곳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미개지는 이미 내가 한번 갔던 곳

한 번 갔던 곳에 다시 가는 것이므로, 공간의 확장은 발생
하지 않으며, 오히려 원래대로 돌아가는 의미로서, 공동체
의 터전 혹은 순수성을 회복하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다만...

CHECK 4 문학 문제 풀이에 속도 더하기 1

이번 문제는 (가)만 읽더라도 풀 수 있었다.
재미있는 것은 때때로,
아니면 생각보다 자주
(가)만 읽고 답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는 (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확실한 정답의 근거를 분명하게 정할 수 있다면,
다른 부분들을 안 읽고 빠르게 풀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오답이라는 근거를 확실하게 발견했다면,
꼭! 시각화하여
확신을 가지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필요가 있다.

달이 뜨는 명절밤 비단치마를 나부끼며 떼지어 춤추던
전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냇물 굽이치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아가자.

- 신동엽, 「향아」 -

⑤ (가)에서 '떼지어 춤추던' 모습은 농경 문화 공동체의
건강한 생명력을 보여 주는군.

- 해야 할 행위: 풍속으로 돌아가는 것, 마음밭으로 돌아
가는 것
- 풍속은 전통과 연관되어 있다.
- 마음밭의 특징: 냇물 굽이치는 싱싱한 (생명력)

(가)에서 명절밤 비단치마를 나부끼며 '떼지어 춤추던'
모습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농경 문화 공동체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나)

이사온 그는 이상한 사람이었다
 그의 집 담장들은 모두 빛나는 유리들로 세워졌다
 골목에서 놀고 있는 부주의한 아이들이
 잠깐의 실수 때문에
 풍성한 햇빛을 복사해내는
 그 유리 담장을 박살내곤 했다
 그러나 애들아, 상관없다
 유리는 또 갈아 끼우면 되지
 마음껏 이 골목에서 놀렴
 유리를 깬 아이는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이상한 표정을 짓던 다른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곧 즐거워했다
 견고한 송판으로 담을 쌓으면 어떨까
 주장하는 아이는, 그 아름다운
 골목에서 즉시 추방되었다
 유리 담장은 매일같이 깨어졌다
 필요한 시일이 지난 후, 동네의 모든 아이들이
 충실한 그의 부하가 되었다
 어느 날 그가 유리 담장을 떼어냈을 때, 그 골목은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임이
 판명되었다, 일렬로 선 아이들은
 묵묵히 벽돌을 날랐다

- 기형도, 「전문가」 -

② (나)에서 골목이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으로 판명되었다는 것은 ‘유리 담장’이 대중을 기만하는 환영의 장치였음을 보여주는군.

③ (나)에서 ‘주장하는 아이’의 추방은 확일적으로 통제된 사회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⑤ (나)에서 ‘일렬로’, ‘묵묵히’ 벽돌을 나르는 모습은 권력에 종속된 대중의 형상을 보여 주는군.

④ (나)에서 ‘곧 즐거워했다’는 것은 권력의 술수에 대중이 길들여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 주는군.

CHECK 5 문학 문제 풀이에 속도 더하기 2

(가)에서 확실한 근거를 발견하고 (나)에 접근할 때 선지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나)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시험력 상승

시험력 자료 구성과 활용 하는 방법

오답률: 71% 2022학년도 9월 모평

13.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갑의 재산으로는 A 물건과 B 물건이 있었으며 그 외의 재산이나 채무는 없었다. 갑은 을에게 A 물건을 무상으로 넘겨주었고 그로부터 6개월 후 사망했다. 갑의 상속인으로는 갑의 자녀인 병만 있다. A 물건의 시가는 을이 A 물건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는 300, 갑이 사망했을 때는 700이었다. 병은 갑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을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했다. B 물건의 시가는 병이 상속받았을 때부터 병이 을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을 때까지 100으로 동일하다.
(단, 채금, 이자 및 기타 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 ①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은 300이다.
- ②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3/7지분이다.
- ③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은 100이다.
- ④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1/3지분이다.
- ⑤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와 을의 노력과 무관하게 상승한 경우 모두, 갑이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재산으로부터 병이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은 동일하다.

지문

사유 재산 제도하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 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는 그 당시지인 무상 처분자와 무상 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반박될 수 있다. 무상 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그의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무상 처분자는 피상속인이 되고 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다.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 한 명뿐이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1/2만 보장된다.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은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에 이미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하여 산정한다. 유류분은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이 있는 상속인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다.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인 유류분 부족액만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류분 부족액의 가치는 금액으로 계산되지만 항상 돈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무상 처분된 재산이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주식처럼 돈 이외의 재산이라면,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무상 취득자는 돈으로 반환해야 한다. 또한 재산 자체의 반환이 가능해도 유류분권자와 무상 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돈으로 반환될 수도 있다.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이라면 유류분 반환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무상 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무상 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뉘지는데, 이때 각자의 몫을 지분이라고 한다. 무상 처분된 물건의 시가가 변동하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연체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그 물건의 시가 상승이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서 비롯되었으면 이때는 무상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반환 대상인 지분을 계산할 때는,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시험당시에 틀렸었는가?

예 () 아니오 ()

배경지식이 필요한가?

예 () 아니오 ()

문제 접근 방식

Step1. 체크리스트

- 처음 풀었을 때를 기준으로
- 맞았는지 여부를 체크하시고,
- 이후 이 문제를 복습하면서,
- 배경지식을 사용했는지를 확인하자

Step2. 문제복기

- 지문에 해당편을 잘해도 좋고,
- 왼편에 문제 접근 방식에서
-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을
- 적분해 정리하면서, 문제에 접근
- 하는 방식을 눈에 보이도록
- 정리하자.

Step3. 자기확인

- 문제를 복기한 것을 기반으로,
- 해당 문제가 나왔을 때
- 정말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 생각해보자.
- 풀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 문제 복기에서 보이는 문제 풀이
- 과정에서 보이는 순서나 혹은
- 논리를 정리한다.
- 또한 사용했던 배경지식 또한
- 정리해보도록 하자.

- 풀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 해당 문제에서 시간을 과도하게
-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한다는 점을
- 인식하고, 우선적으로 넘어가고,
- 남은 시간에 푸는 전략을 세우자.

수능 현장에서 풀 수 있는

예 () 아니오 ()

[To-Do List]

이 학습자료 이후 시험력을 상승시키기 위해

- 국어 문제들을 복습하면서 수능시험장에서 풀 수 있는 문제인지 판단하시고
- 풀 수 있는 문제라면, 자신만의 가이드를 만드시고
- 풀 수 없는 문제라면, 해당 문제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의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시면 됩니다.

지문

(다)

온갖 꽃들이 요란스럽게 일제히 터트려져 광채가 찬란하다. 이때에 바람이 살짝 불어오면 향기가 코를 스친다. 때마침 꿀 베는 자가 낮을 가지고 와서 손 가는 대로 베어 내는데, 아쉬워 돌아보거나 거리키는 마음도 없다. 나는 이에 한숨을 쉬며 탄식하여 말하였다.

“땅이 낡고 하늘이 기르느바, 만물이 무성히 자라며 모두가 광대한 은택을 입는구나. 이에 따스한 바람이 불어 갖가지 형상을 아로새기고 단비를 내려 온 돌레를 물들이니, 천기(天機)를 함께 타고나 형체를 부여받음에 각기 그 자질에 따라 고운 자태를 드러낸다. 모란의 진귀하고 귀중함을 해당화의 곱고 아름다움에 견주어 보면, 비록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으나, 어찌 공교함과 줄렬함에 다른 헤아림이 있었겠는가?

(중략)

그런데도 귀함이 저와 같고 천함이 이와 같아, 어떤 것은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에서 눈앞의 봄바람을 지키고, 어떤 것은 짧은 낮을 든 어리석은 종의 손아귀에서 가을 서리처럼 변한다. 이 어찌 된 일인가? 뜨락은 사람 가까이에 있고 교외의 땅은 멀리 막혀 있어 가까운 것은 친하기 쉽고 멀리 있는 것은 저어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요황과 위자*는 성씨가 존엄한데 범상한 화초는 이름이 없으며, 성씨가 존엄한 것은 곱게 빛나는데 이름 없는 것들은 먼 데서 이주해 온 백성 같은 존재이기 때문인가? 그도 아니면 뿌리가 깊은 것은 종족이 번성한데 뻗뻗이 늘어선 것들은 가늘고 작으며, 높고 큰 것은 높은 자리에 있고 가늘고 작은 것들은 들판에 있기 때문인가?

아! 낡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으나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에 달려 있다. 하늘은 사사로움이 없기에 그 조화(造化)가 균일하지만, 인간은 널리 베풀지 못하므로 소원함도 있고 친함도 있는 것이다. 하늘이 이미 낡아 주었는데 또 어찌 사람이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지 못하게 한다고 원망하겠는가? 나에게서는 비록 감정이 있지만 풀에는 감정이 없으니, 그것이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것과 나비로 하여금 다투어 찾도록 하는 것을 어찌 달리 보겠는가?”

- 이옥, 「담초(談艸)」 -

* 요황과 위자: 모란의 진귀한 품종을 일컫는 말.

정말 다시 풀 수 있는가?

예 () 아니오 ()